

樹種, 接種量 및 接種方法이 茯苓 菌絲生長과 結苓에 미치는 영향

이희덕, 김용균, 김홍규, 한규흥, 문창식, 허일범

충청남도 농촌진흥원

현재 한방에서는 한약재의 보약 제조시 필수 약제로 사용되는茯苓은 자연발생하는茯苓을 채집하여 수요에 충족하기에는 소나무가 적어지고 산림지대는 사람출입이 어렵게 되어 인건비 상승으로茯苓채취량이 적어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茯苓 인공재배법 개발에 의한 접종량 과다소요, 노동력상승 등으로 재배농민이 기피하는 실정이고 특히 접종후 우기나, 과다강우시는茯苓접종을 실패하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충남 농촌진흥원에서는茯苓인공재배시 수종 선발과 접종방법등을 구명하여 종균소요량 절감과 노동력 개선에 의한 효과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1)茯苓균의 균사생장 증식에 가장 적합한 배지는 MCM(mushroom complete medium)이었다.
- 2)종균 접종 소요량은 관행(절편접종)은 20병(1000cc bottle)이 소요되고 단목접종은 8병, 드릴접종은 2~3병 소요로 관행대비 60%, 90~85% 종균을 각각 절감할 수 있다.
- 3)수종선발에서 소나무, 낙엽송이 종균활착 및 결령 상태가 양호하고 수량은 평당 소나무 33.7kg, 낙엽송 29.5kg, 참나무 3.4kg으로 소나무와 낙엽송이 적합하였다.
- 4)소나무에서茯苓 수량은 관행(절편접종)재배시 23.4kg, 드릴접종 29.4kg, 단목접종은 31.7kg으로 관행대비 드릴 접종은 25%, 단목 접종은 35%, 증수하였고 경영비도 절감되었다.